

## 광주 反FTA 시위 폭력 난동

### 시위대, 평화집회 약속 깨고 시청진입 충돌

유리창 340장 파손...경찰·시위대 등 40여명 부상

2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가 폭력 난동으로 변질됐다. 평화시위를 하겠다고던 주최 측은 사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광주시청은 시위대들이 던진 돌맹이로 340여장의 유리창이 깨지고, 보안시스템과 산업 전시관이 파손되는 등 난장판이 됐다. (관련기사 6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를 위한 광주전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한미FTA협상 저지 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한미 FTA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전남 농민 9천여 명을 비롯한 광주YMCA·경찰

련·민주노총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만2천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시위대들은 이어 오후 4시30분께 박광대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과 1시간여 동안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시위대 100여 명은 죽봉을 휘두르며 진입을 시도했으며, 보도블록을 던져 현관·시장실 등 광주시청 건물 유리창 340여장을 깨다. 참가자들은 또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불 태우기도 했다.

광주시청은 이로 인해 유리창·보안키시스템·출입문·보도블록·산업 전시관 등이 파손돼 3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19개 중대 2천

300명을 동원해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경찰·시위대 등 40여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시청은 시민의 재산이다.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 시민의 긍지를 살려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게 폭력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밤 집회 주최 측이 경찰과 만나 평화시위를 할 테니 막지 말아달라고 해놓고,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미 FTA 협상 반대집회는 서울·대전·강원 등 전국 13곳에서 7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에 열렸으며, 대전에서는 시위대들이 충남도 경찰청 담장에 방화하는 등 폭력으로 일탈했다. /이승배기자 lsb54@



22일 '한미 FTA협상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 궐기대회' 중 부서진 광주시청사 유리창. 집회에 참가한 농민·노동자 100여 명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리창 340여 장이 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나명주기자 mjna@

### 자녀 3명 女공무원 전남도 인사 우대 출산 장려~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전남도내에서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여성공무원은 내년부터 인사에서 우대를 받는다.

전남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직장 내 출산 장려 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남도의 자녀녀 여성 공무원 인사상 우대 정책은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다출산 공무원에 대해서는 1점 이상 인사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임신 또는 6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양육 공무원에 대해 유급휴가 및 퇴근근무제 등을 적용하고 모유 수유실이나 보육시설 등 육아시설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최고의 전통, 최고의 코스, 최선의 환경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내년 3월 1일에도 번영없이 개최됩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세계에 알렸던 3·1절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마라톤은 매년 제 42회를 맞아 초·중·고등 전국마라톤선수가 각축이 펼쳐지는 대규모 축제 한마당으로 열리게 됩니다.

광주일보사는 3·1절대회의 취지와 취지에 맞추어 내년 3·1절마라톤대회도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족의 학업·스포츠의 무리를 다지는 즐거운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이 힘한 기로에 맞서는 대회를 함께 맞이합니다.

- 일시 : 2007년 3월1일 오전 9시
- 장소 : 광주월드컵 경기장
- 종목 :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thon.kwangju.co.kr) 전화 (062) 220-0544

● 주 회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 관 : 광주 전남육상연맹, 배안 커뮤니티센터, 한국마라톤 여행기획

### 초·중학생 논술 수업 받는다

교육부, 논술 내실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들의 논술동아리 지원과 연수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논술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술교육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속에서 내년 2월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고시할때 초·중 국어교과에 논술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도 논술관련 학습목표를 추가해 논술지도를 강화하고 고교의 경우 작문 교과서에 논술관련 단원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논술관련 내용을 내년 2월 개정 고시하는 교육과정 개편에 포함시키고 교과서에는 200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승철 광주공연**  
12월 16일(토) 오후 7:30 광주연주채육관  
광주일보사 (062)220-0541, 1544-1216

## 여야 3당 중진 오늘 회동

〈열린우리·민주·국민중심당〉  
정계개편 방향 논의...정치권 촉각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국회의원들이 23일 만찬 회동을 갖고 제3지대에서의 통합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회동은 정계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범 여권' 3개 정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계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범 여권 통합 등 추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

순)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에서는 광주 의양일 의원(광주 동)과 전남의 김성곤 의원(여수 갑), 충청권의 박상돈(충남 천안 을) 의원, 수도권 의종걸 의원(경기 안양) 등이 만찬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의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회동 참여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중심당에서는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연기)과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이날 회동에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최인기 의원 외에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이 회동에 참석한다. 이번 회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범여권 3개 정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계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도 있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전남대 사학과 총동창회**  
일 시 : 2006년 11월 25일(土) 오후 5시  
장 소 : 광주상록회관 4층 연회장  
연락처 : 011-613-4624

국립전남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신남대학교  
http://www.shinnam.ac.kr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사람은 낮을 가리지만...

가뭇갈수록 더욱  
**안아드립니다**  
Free Hugs

**사랑은 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용기만 있다면 함께 체온을 나눌 수 있듯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디든지 먼저 가겠습니다. 금호아시아나는 90개의 봉사조직을 구성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돕고 모든 임직원들이 헌혈운동에 나서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기업'이 되기 위한 7대 실천과제  
1. 고차관급 임직원은 1년 1회 이상 봉사 2. 장애인 등 소외계층 돕기 3. 헌혈운동 4. 문화재 등 지키기 5. 이색적인 봉사활동 6. 자원봉사 참여